

“투기 근절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해야”

신정훈 의원·농촌경제연구원, 농지제도 개선 국회 긴급 토론회
전남 관내 토지소유자 거주비율 2016년 64.4%→2019년 62.9%
전남 경지 28만6396ha 45년 새 20%↓…“경자유전 원칙 세워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7일 주관한 ‘농지제도개선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나왔다.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 자료에 따르면 관외 거주자의 농지소

유 비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내 토지소유자 거주비율은 지난 2016년 62.1%에서 2019년 60.4%로, 1.7%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평균 거주비율 역시 같은 기간 50.2%에서 46.8%로 떨어졌다. 농도(農道) 전남 역시 이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남 시군구 내 토지소유자 비율은 64.4%(2016년)에서 62.9%(2019년)로, 3년 새 1.5%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평균 농가 고정자산 가운데 토지 면적은 2016년 1만1458㎡에서 지난 2019년 1만164만㎡로, 3년 새 11.3%(-1294㎡) 감소했다.

지난해 논과 밭 등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남 경지면적은 28만6396ha(헥타르, 1ha=0.01㎢)로, 1년 전보다 0.6%(-1852ha) 감소했다. 전남 경지면적은 전국(156만4797ha)의 18.3%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관련 통계를 낸 45년 전(1975년) 36만1741ha에 비해서는 20.8%(-7만5345ha) 감소했다. 광주 전체 면적(5만118ha)의 1.5배 수준이 사라진 셈이다. 조병옥 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의 보완을 주장했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계획과 농기구 조달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 가능하는 등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취득 시 사전관리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를 강화토록 먼 거리에 사는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농지법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거나, 1000㎡ 이상 규모의 농사를 지을 경우, 또는 농지에서 연 120만원의 수익을 거두기만 하면 1000㎡보다 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민 자격을 준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통해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다”며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차단할 농지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하다. 박 연구위원은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상속 농지 등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 유지 ▲농지상속 신고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 의무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가격 상승 억제 등을 제안했다. 신정훈 의원은 “주말, 영농체험을 겸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뒀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의원을 비롯 김정호, 위성곤, 이원택, 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농철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 교육 실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운데)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농촌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협약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농촌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함께 고려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한다. 전남농협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농번기 대비 농기계 점검·안전운전 교육 등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농협 전남본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농촌인구 고

령화에 따라 농기계, 전동휠체어 등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친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양 기관이 농촌 농기계·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한 협약은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서광주농협, 하나로마트 직영화 확대

로컬푸드 비중도 늘려

서광주농협이 최근 하나로마트 동림점을 세단장하고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비중을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동림점은 이번 세단장으로 기존보다 면적을 약 140㎡(40평)을 넓혔다. 임대매장은 직영화했고, 지역 농산물 매대는 2배 확대했다. 서광주농협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과 상생협약을 맺고 당일 새벽에 농산물을 매일 공급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세단장 기념행사에는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과 문병우 조합장 등이 참석해 소비자유동 활성화를 결의했다. 문 조합장은 “올해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유통혁신과 마트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찾아가는 마케팅 현장교육

금융 이슈 안내·신용사업 분석 등 진도농협서 임직원 20명 대상 실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진도농협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상호금융 ‘찾아가는 마케팅 현장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개별 농·축협이 효율적으로 손익을 진단하고 영업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마케팅 현장교육’은 각 지역 농·축협이 신청하면 농협 상호금융사업 지원본부에서 대상 사무소를 선정,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전남본부의 올해 첫 교육이 치러진 이날에는 디지털 전환, 비대면 문화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금융 이슈 안내가 이뤄졌다. 신용사업 분석 그리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와 토론도 벌였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사무소별 사업 환경을 분석하고 강점을 찾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임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 고객,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농 단계마다 우대금리… ‘NH농촌으로 적금’ 출시

농협 전남본부, 1만좌 한정 판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출시한 ‘NH농촌으로 적금’ 신규 가입 행사를 진도농협에서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적금은 귀농을 결심한 예비 농업인에게 필요한 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이다. 고객의 가입기간 내 귀농준비 단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먼저 귀농을 결심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에 가입하면 0.2%, 추가로 귀농준비를 위해 농업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면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귀농한 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5% 등 최고 2.0%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농·축협 조합원이 아닌 개인이며 1인 1계좌, 최대 3년까지 년 단위로 매월 1만원 이상 200만원 이내 한도까지 전국 농협 창구에서 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1만좌까지 한정 판매 후 종료된다. 농협은 출시 기념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상품 가입고객 중 660명을 추첨해 농촌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고금리 수신상품이 출시돼 기쁘다”며 “미래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전남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